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재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니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엉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 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작자 미상, 「옹고집전」-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상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가 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읽기 전 활동

주인공인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키는 작품입니다. ‘참옹고집’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게 소외를 경험시켜 사회적 책무를 깨닫게 하는 작품입니다. ‘참옹고집’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참옹고집’은 성격이 좋지 않은 부자입니다. 〈보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앞에 가짜 옹고집인 ‘짚옹고집’이 등장합니다. 두 옹고집이 서로 자신이 진짜 옹고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인가를 겨루는 송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짚옹고집’은 주저 없이 자신이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반갑게 말을 걸고 ‘참옹고집’이 할 말을 자신이 다 하며 자기가 진짜 옹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옹고집’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수 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상황을 보니 ‘짚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을 가르느 송사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송사에서 승리한 ‘짚옹고집’은 자신이 그동안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과천선하겠다는 오늘부터 자신의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빈곤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옹고집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보기〉에서 ‘참옹고집’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을 외면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물에게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가짜 옹고집에게 송사를 패배하게 된 상황이 ‘참옹고집’의 소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옹고집’이 가짜가 된 상황이니, 가족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된 것입니다.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느니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접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 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송사에서 패배한 ‘참옹고집’은 전전걸식하다가 옹고집이 활인구제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해하며 찾아갑니다. ‘짚옹고집’은 도술을 통해 ‘참옹고집’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옹가(참옹고집)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으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환들이 ‘참옹고집’을 ‘짚옹고집’에게 데리고 갑니다.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참옹고집’은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② 사건 연결하기

사건을 한 번 정리해봅시다. ‘짚옹고집’이 ‘참옹고집’ 앞에 등장해 자신이 진짜인 것마냥 행세하고, 송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짚옹고집’은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참옹고집’은 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짚옹고집’은 부유하지만 베풀지 않는 ‘참옹고집’에게 소외를 경험하게 하고, 개과천선하라는 교훈을 주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참옹고집’은 개과천선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총평

이러한 작품 구조를 송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송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참옹고집’이 개과천선하게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었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송사의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송사는 ‘참옹고집’과 ‘짚옹고집’ 중 누가 진짜 옹고집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행인들은 이 송사 내용에 대해서 ‘참옹고집’과 ‘짚옹고집’ 둘 중 누가 진짜인가 알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예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짚옹고집’이 앞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본 ‘참옹고집’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습니다. ‘참옹고집’은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송사 가는 이들은 ‘짚옹고집’과 ‘참옹고집’입니다. 하지만 두 인물이 서로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 송사 가는 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외양이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인물 간의 대화 내용만이 등장합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 갈 마음 전혀 없다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참옹고집’의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을 보고 우리 서방님이 고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집

에 돌아온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짚옹고집'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짚옹고집'은 도술을 통해 '참옹고집'이 근처에 온 것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참옹고집'이 근처에 도달한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 후 사환을 시켜 '참옹고집'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이 있는 집 근처에 왔지만, 마을 뒷산에서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는 '참옹고집'의 모습입니다.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의 명을 듣고 온 사환들에게 갈 마음이 없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참옹고집'이 가족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은 송사에서 패배한 이후입니다. '짚옹고집'이 자신의 집을 차지하게 되었고, '참옹고집'은 집에서 나가 전전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짚옹고집'이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가족 앞에서 자신이 진짜 옹고집인 척을 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짚옹고집'은 자신이 전곡을 아낄 줄만 알고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했다며 개과천선해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할인구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참옹고집'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짚옹고집'은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는 원래 '참옹고집'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인데, 이를 '짚옹고집'이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짚옹고집'은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옹고집'은 재물이 많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옹고집'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 '참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을 가리는 송사에서 '짚옹고집'에게 패소해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갑니다.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옹고집'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가 지도 고려하였군.

→ 우선 [B]에서 ‘참옹고집’을 살려 주는 이유는 ‘나의 어진 용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정상이 불쌍’하고 처지가 가여운 이유로 ‘참옹고집’을 살려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해 ‘참옹고집’을 살려 주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인 ‘참옹고집’의 처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B]에서 ‘참옹고집’을 살려 주면서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 싶으니 개과천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너의 처지가 가여움’을 말하면서 ‘참옹고집’을 살려 주고 있습니다.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을,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B]에서 ‘참옹고집’의 악행을 말하면서 ‘부모 박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옹고집’이 비인륜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와 <보기>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군.

→ [B]와 <보기> 모두에서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B]에서는 ‘참옹고집’이 ‘참옹고집’을 오라고 한 뒤에 발화하고 있습니다.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참옹고집’이 ‘참옹고집’을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옹고집’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후 도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사의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되는 계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 [B]의 ‘참옹고집’은 ‘참옹고집’을 훈계한 후 ‘허수아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의 도사는 ‘참옹고집’을 훈계한 후 ‘홀연’ 사라지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신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